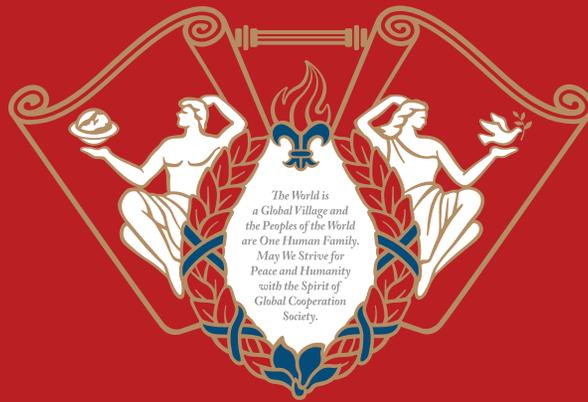


2024

# 학문과 평화

대학다운 미래대학



KYUNG HEE  
UNIVERSITY

경희대학교



가곡 ‘목련화’에 담긴  
경희의 얼 “새 시대의 선구자”



## 변화와 창조를 향한 힘을 모으고 그 힘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라

“오 내 사랑 목련화야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로 시작하는 가곡 ‘목련화’의 노랫말은 경희학원 설립자故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1921~2012)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이 곡에는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꿈꾸며 평화로운 지구사회, 풍요로운 미래문명을 창달하는 경희의 열이 녹아있습니다.

“추운 겨울 헤치고 온 봄 길잡이 목련화”, “새 시대의 선구자”, “함께 피고 함께 지니 인생의 귀감이로다”라는 노랫말에도 나타나듯 목련은 선구적 삶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두 하나 되는 삶을 추구합니다.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함께 일궈 가자는 열정과 염원을 품고 있습니다. ‘변화와 창조를 향한 힘을 모으고 그 힘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라. 변화의 힘을 발견하고 세상과 교감하라.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해.’ 목련이 품은 참뜻입니다. 경희는 목련을 교화로 삼아 그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문화세계의 창조’ ‘학문과 평화’의 여정

1949년, 경희의 역사가 시작된 해입니다.  
 경희는 1년 후, 6·25 전쟁의 총성과 함께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1951년 부산 동광동  
 판자 교사 세 채에서 학생 122명, 교직원 5명과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한반도,  
 모든 것이 어렵고 힘겹기만 했던 신생 대학.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경희는 무에서 유의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오늘날 경희는 학생 3만 4,388명,  
 교수 1,378명, 직원 506명이 함께하는  
 명문사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역사의 배경엔 경희정신이 있습니다.  
 ‘대학다운 미래대학 건설’을 위한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경희는 그 다짐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온오한 학술연구 온갖 노력 바치고  
 변전하는 세계의 진리를 연구하여...  
 인류 위해 일하고, 평화 위해 싸우세.”  
 ‘문화세계의 창조’, ‘학문과 평화’  
 경희가 함께해 온 남다른 가치입니다.

1949 ——— 1979

##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일관체계 구축

### 교육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다

경희학원 설립자 조영식 박사는 6·25 전쟁 중에 ‘교육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교육입국·教育立國)는 뜻을 세우고, 1951년 5월 18일 신흥초급대학(1949년 설립)을 인수했습니다. 피란지 부산에서 태동한 경희는 1954년 서울캠퍼스 시대를 연 데 이어 1960년 교명을 신흥에서 ‘경희(慶熙)’로 개명하면서 비약적 발전을 거듭합니다. ‘유아 교육에서 대학원 교육까지’라는 구상과 함께 유치원, 초등학교, 남·여 중고등학교, 대학원, 사이버대학교가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인 교육의 철학과 비전이 일관된 교육체계, 전일적 학술체계 ‘학교법인 경희학원’ 체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1965. 4. 27

한외과대학 전신인 동양외과대학 합병  
경희의료원 착공식 개최

1965. 6. 29 ~ 7. 3

경희학원 설립자가 결성 주도한  
세계대학총장회(IUP) 창립  
창립총회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개최

1966. 5. 18

잘살기 운동 헌장 제정 및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

1968. 6. 18 ~ 20

세계대학총장회(IUP) 2차 회의  
경희대에서 개최



1949. 5. 12

신흥초급대학(2년제) 설립 가인가

1951. 5. 18

신흥초급대학 인수  
『문화세계의 창조』 발간

1951. 8. 20

부산 동광동 가교사 신축 및 개강  
교훈 ‘학원의 민주화·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발표

1952. 2. 3

정규 신흥초급대학 설립 인가

1952. 12. 9

4년제 정규대학 ‘신흥대학’ 설립 인가

1953. 3. 1

교기 및 교가 제정

1953. 3. 20

부산 동대신동 소재 교지 구입 및  
신교사 낙성 이전

1953. 10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교지 30여만 평 확보

1954

국내 대학 최초의 마스터플랜 수립

1954. 3. 24

피란지 부산에서 서울로 복귀

1954. 7

문맹퇴치운동, 조림녹화사업 등  
농촌계몽 봉사활동 전개

1955. 2. 28

종합대학교 설립 인가

1960. 3. 1

‘신흥’에서 ‘경희(慶熙)’로 교명 변경

1964. 10. 2

9회 학원제에서 경희학원 설립자의  
개교 50주년·100주년에 보내는 메시지 채택



1971. 10. 5

경희의료원 개원

1975. 10. 28

밝은사회운동 전개

1976. 3. 30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개원

1979. 1. 10

수원캠퍼스(현 국제캠퍼스) 교지 확보 및  
설립 인가

1979. 5. 18

개교 30주년 기념 ‘경희의 탑’  
(밝은사회운동탑, 잘살기운동탑) 제막

1979. 10. 28

경희대-로마클럽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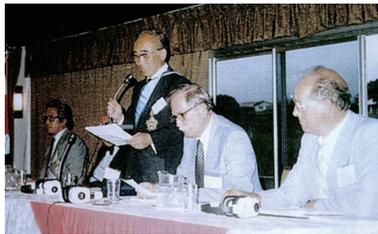


1980 ——— 2008

## 경희의 평화사상을 세계로, 미래로

### 'UN 세계평화의 날/해' 제정을 주도하다

1980년대 들어 국제캠퍼스와 광릉캠퍼스가 새롭게 태동했습니다. 경희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의학, 공학, 예술, 체육 등 전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명문사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인류평화를 위한 큰 발걸음도 내디뎠습니다. 1981년 경희가 제안한 '세계평화의 날/해'가 36차 UN 총회에서 15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결, 선포됐습니다. 세계대학총장회(IAUP) 결의로 UN에 전달된 이 제안은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회고했듯, 동서 냉전이 종식을 고하는 데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세계평화의 날/해'를 제정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된 경희의 평화사상은 교육과 연구, 실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1. 6. 28 ~ 7. 3**

경희학원 설립자 6차 IAUP 총회에서 'UN 세계평화의 날/해' 제정 제안

**1981. 11. 30**

경희학원 설립자가 제의한 'UN 세계평화의 날/해'가 36차 UN 총회에서 만장일치 통과 제정

**1982. 9. 21**

1회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 (이후 매년 국제학술회의 개최, 2004년부터 Peace BAR Festival로 확대)

**1983. 10. 29**

광릉캠퍼스 평화복지대학원 설립 인가

**1984. 9. 25**

광릉캠퍼스 교지 확보·평화복지대학원 개원

**1986**

『세계평화대백과사전』, 『세계시민교과서』 발간

**1993. 12. 10**

평화복지대학원, 교육기관 세계 최초로 UNESCO 평화교육상 수상

**1997. 4. 18**

천문대 변광성 발견('경희성'으로 명명)

**1998. 12. 14**

경희의료원 인간체세포 복제 실험 성공

**1999. 9. 20**

『동양의학대사전』(전 12권) 발간



**1999. 10. 10**

1999 서울NGO세계대회 개최

**1999. 10. 11**

평화의 전당 개관

**2000. 11. 30**

경희사이버대학교 설립 인가

**2001. 9. 28**

새천년기념탑-네오르네상스문 준공

**2006. 6. 12**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개원

**2007. 7. 30**

수원캠퍼스, '국제캠퍼스'로 명칭 변경



2009

## 대학의 사회적 책무, 지구적 확산

### '지구적 존엄 구현(Towards Global Eminence)' 비전 선포

경희는 2009년 60주년을 계기로 새롭게 도약했습니다.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지구적 존엄 구현(Towards Global Eminence)'이라는 비전과 함께 창학 초기부터 펼쳐온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지구적으로 확대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교육, 연구, 실천 역량이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경희는 비상했습니다. 2007년부터 4년간 QS 세계대학평가에서 259계단 뛰어올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대학'으로 평가됐습니다. 상승 추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상 강화는 학생 만족도로 이어져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5년 연속(2015~2019년) 사립대 2위에 올랐습니다. 경희가 '인간과 지구의 더 나은 미래', '미래세대의 더 큰 미래'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2009. 5. 5 ~ 8

세계시민포럼(WCF), 세계시민청년포럼(WCYF) 창립식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2009. 5. 6

경희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식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지구적 존엄 구현(Towards Global Eminence)' 개최

2009. 12

석학초빙제도 도입

2010. 7. 2

경희대학교 의료기관 '소통과 융합으로 의료의 미래를 창조하는 병원' 비전 선포

2011. 3. 1

후마니타스칼리지, 지구사회봉사단(현 글로벌봉사팀) 출범

2011. 5. 17

유네스코 석좌기관(UNESCO Chair) 선정

2011. 8. 24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서울·국제캠퍼스 통합 운영 승인

2011. 9. 15

UN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UNAI-경희 국제회의' 서울 평화의 전당과 뉴욕 UN 본부에서 동시 개최

2012. 12. 21

미래전략 Global Eminence 2020 선포

2013. 3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 사업 추진

2013. 5. 18

「경희백년 미래메시지」 발간

2015. 5. 22 ~ 24

세계대학총장회(AUP) 창립 50주년 기념식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공동 주최

2015. 6. 5

「경희대학교 미래대학리포트」 발간

2017. 5. 17

국제캠퍼스 종합체육관 '선승관' 개관

2017. 12

캠퍼스 종합개발 'Space21' 1단계 완공

2018. 10. 5

경희의료원 후마니타스암병원 개원

2018. 12. 31

서울캠퍼스 본관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2019. 3. 4

신입생 전원 대상 '세계시민교육' 도입

2019. 12. 9

국가고객만족도 5년 연속 사립대 2위

2020. 6. 10

QS 세계대학평가 236위, 역대 최고

2022. 3. 2

빅데이터응용학과, 인공지능학과, 스마트팜학과 신설

2022. 5. 12

AI 서버실·X-Space 개소

2022. 8. 5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에 경희대가 개발한 자기장측정기 탑재

2022. 11. 21

융합기술연구원 개소

2023. 8

「경희대학교 미래리포트 2023」 발간

2024. 3. 4

반도체공학과 신설

2024. 6. 12

THE 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23위

2024. 11. 6

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 개소(센터장: 노벨상 수상자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2025. 3. 4

열린 전공(자유전공학부) 개편·신설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신설



# ‘문화세계 창조’를 향한 ‘대학다운 미래대학’

‘Towards Global Eminence 2030’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를 상징화한 본관 부조상.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꿈꾸며 평화로운 지구사회, 풍요로운 미래문명을 창달하는 것이 경희의 설립 정신입니다.

인류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문명사적 전환은 ‘예측 불허의 미래’를 불러옵니다.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줄 것인지, 암울한 재앙이 될 것인지 선불리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디스토피아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오늘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경희는 되묻고 고민했습니다. 시대 변화를 주시하며 대학의 존재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학,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모색했습니다. 그 성찰의 결과 ‘문화세계의 창조를 향한 대학다운 미래대학 Towards Global Eminence’를 미래비전으로 수립했습니다. 경희는 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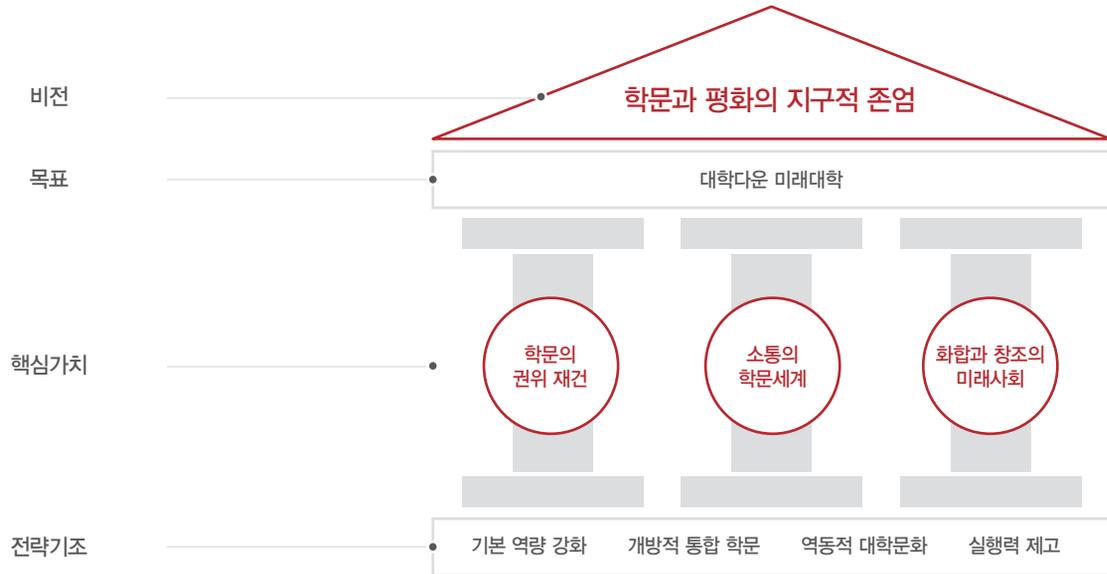
“  
‘학문과 평화’의  
역사와 전통 위에서  
‘인간과 지구의  
더 나은 미래’,  
‘미래세대의  
더 큰 미래’를 향해  
새롭게 약진합니다

”

‘문화세계의 창조’ 아래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계승하며 대학다운 미래대학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대학다운 미래대학은 이론과 현실, 학술과 실천, 과거와 미래, 지역과 지구를 창조적으로 연계합니다. 인문·문화, 미래과학, 바이오·헬스, 문화예술, 사회체육 등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통해 문명사적 대전환에 대응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학습·연구·실천 환경을 구축합니다.

경희는 ‘학문과 평화’의 전통 위에서 ‘지구적 존엄’을 구현하며 ‘인간과 지구의 더 나은 미래’, ‘미래세대의 더 큰 미래’를 향해 새롭게 약진합니다.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융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구공동사회를 선도하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향해 나아갑니다.

## 미래비전체계도



##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



## 2024 THE 대학 영향력 평가(THE Impact Rankings 2024)



경희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도를 반영하는 'THE 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세계 23위에 올랐습니다. 8개 목표는 세계 100위권을 달성했습니다.

##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

THE 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23위 · 세계 사립대 2위, 일자리 · 경제성장(SDG 8) 세계 4위  
 17개 전 항목 순위권 진입...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다각도 기여

경희가 2024년 타임스고등교육(THE)이 발표한 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세계 23위 · 세계 사립대 2위를 달성했습니다. 이 평가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합니다. 경희는 양질의 일자리 · 경제성장, 산업 · 혁신 · 인프라, 지속 가능한 도시 · 지역사회 등 5개 목표에서 세계 50위권에 올랐고, 나머지 12개 목표도 세계 순위권에 진입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해 온 노력을 다각도로 인정받았습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 국제사회 공헌을 통해 미래대학의 길을 열어온 경희는 글로벌 · 공공 협력을 주요 가치로 삼아 교육 · 학술기관, 국제기구, NGO, 정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미원평화학술원 · 미래문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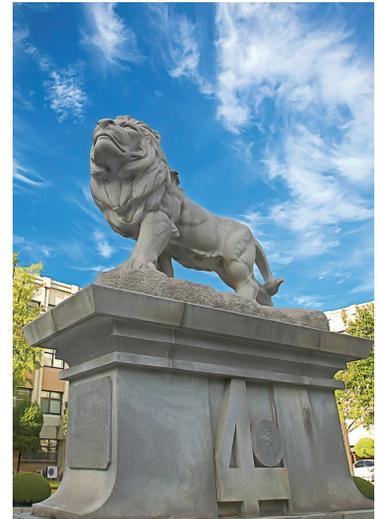
“  
 나날이 커지는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대학에 주어진 책무 중  
 하나입니다  
 ”

체제 출범을 기점으로 협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문명의 미래에 기여하는 연구 · 학습 · 실천 과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SDGs 교육을 확대해 세계시민과 SDGs · ESG 전문가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 최초로 전교생 대상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등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SDGs 교과를 운영해 온 경희는 이를 전공으로 확대했습니다.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그린바이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등에 선정된 것을 기회로 삼아 기후와 식량 문제에 대응하는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2023년에는 ESG 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ESG위원회는 대학, 공공기관, 나아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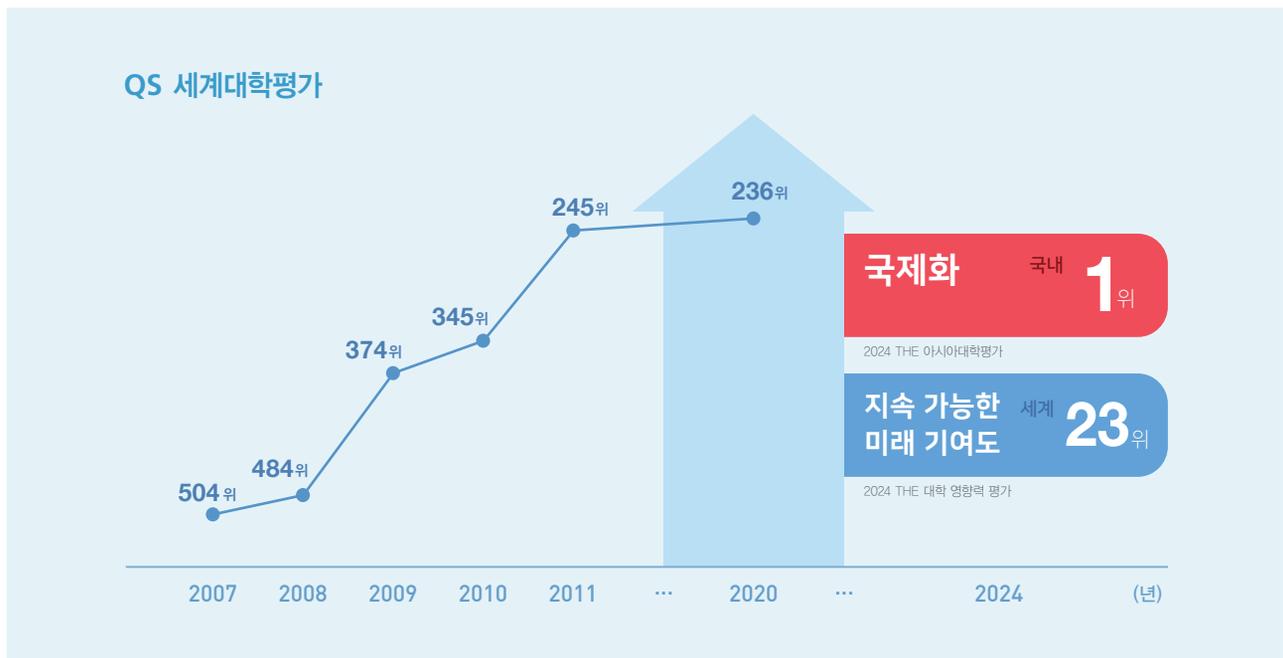
#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대학

'QS 세계대학평가' 4년간 259계단 올라...상승 추이 이어져  
학생 만족도 조사 5년 연속 사립대학교 부문 2위

경희는 2007년부터 4년간 QS 세계대학평가에서 259계단 뛰어올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대학'으로 평가받았습니다. THE 세계대학평가에서도 2015년 431위에서 2020년 266위로 165계단 순위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각종 대학평가에서 경희의 상승 추이는 계속됐습니다. 위상 강화는 학생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경희는 국가 고객만족도(NCSI)에서 5년 연속(2015~2019년) 사립대 2위에 올랐습니다. 교육 및 연구 역량이 강화되면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학과와 교수가 늘었습니다. 식품 영양학과 임종환 교황명예교수는 8년 연속 '세계 상위 1% 연구자(HCR)'에 선정됐습니다. 임 교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생분해성·기능성 나노컴포지트(Nanocomposite) 포장재 개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주과학과 선종호 교수 연구팀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50여 년 만에 인간을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CLPS)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주과학과 진호 교수 연구팀은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KPLO)'에 탑재된 자기장측정기를 개발하며 우주 개척 시대의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개교 40주년 기념 '웃는 사자상'



## 학문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학

전 학문 분야 고루 발전, 세계적인 학과 늘어...호텔관광학 세계 15위  
통신공학, 식품공학, 교통기술 분야 국내 1위 달성

경희는 각 학과 및 단과대학(원)의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학문의 다양성과 탁월성을 존중하는 대학 문화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학문의 다양성과 탁월성을 이뤄내는 것이 대학의 근본 가치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인문, 사회, 자연, 공학, 예체능, 의학 등 전 학문 분야가 고루 발전했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문 분야가 늘어났습니다. 각 학문 분야의 탁월한 성취는 대학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해교통대가 매년 발표하는 학문 분야 평가 'Global Ranking of Academic Subjects(GRAS)'에서 경희는 2024년, 호텔관광학 세계 15위, 통신공학 세계 33위, 식품공학 세계 77위에 올랐습니다. 호텔관광학은 경희가 강세를 보여온 분야입니다. 경희는 GRAS가 처음 발표된 2017년, 호텔관광학 분야에서 세계 11위, 국내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이후 세계 순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호텔관광학 분야에서 '세계 상위 1% 연구자(HCR)'를 배출하는 등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경희는 2024 GRAS에서 통신공학, 식품공학, 교통기술 분야 국내 1위를 달성했습니다. 통신공학 분야에서는 연구 탁월성을 인정받아 국내 대학 최초로 이음 5세대 주파수(4.7GHz 대역의 신청 주파수 대역 전체)를 도입한 데 이어 6G 무선 통신, 양자 통신, AI 기반 통신 등 최첨단 통신 기술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에 선정돼 양자 통신 상용화를 위한 한계 극복에 나섰습니다. 소재 분야에서 양자 통신용 단일 광자를 상온에서 생성하는 기술을 주제로 양자 컴퓨터와 양자 통신을 아우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24 상해 학문 분야 평가(GRAS) 순위

순위	학문 분야
15	호텔관광학
33	통신공학(국내 1위)
77	식품공학(국내 1위)
101~150	전기전자공학, 치의학, 교통기술(국내 1위), 화학공학
151~200	에너지공학, 나노과학, 금속공학



# 모든 의학 계열 단과대를 갖춘 대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간호학에 이르는 종합의학 계열 확립  
 의학 계열 단과대학 5개·의료기관 2개 운영

경희는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간호학을 포괄하는 종합의학 계열 체계를 국내 최초로 확립했습니다.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과학대학 등 5개 의학 계열 단과대학을 갖추고, 경희의료원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을 개원해 '질병 없는 인류사회'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후마니타스 암병원을 개원했습니다. 동서의학, 기초와 임상, 학문 경계를 넘어서는 진료, 연구, 교육, 의료봉사 활동을 펼쳐 온 의학 계열 단과대학과 의료기관이 내실 강화와 시설 재정비를 통해 재도약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학 계열 단과대학은 양 의료기관의 인

“  
 경희의 의학 계열  
 단과대학과  
 양 의료기관은  
 동서의학, 기초와 임상,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는 진료, 연구,  
 교육, 봉사 활동을  
 펼칩니다  
 ”

프라를 바탕으로 임상실습을 확대해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탁월성을 인정받아 해당 교육평가원에서 인증을 획득하고, '2025 THE 세계의과대학 평가'에서 국내 5위에 올랐습니다. 경희 의료기관은 백신 R&D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지원한 결과, 보건복지부 '글로벌 백신 기술 선도 사업단(사업단장)'에 선정돼 1,127억 원 규모의 백신 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병원은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2025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정형외과 세계 17위, 내분비내과 세계 32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경희의료원 앞 잔디광장에 세워진 '건강의 여신상'. 건강의 여신상은 "환자에게 인랑함을 제공하고 인류를 보듬는다"는 '경희 의학'의 의지와 미래상을 표현합니다.

## ‘UN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주도한 대학

1981년 UN에 세계평화의 날/해 제정 제안, 평화 향한 큰 전진

교육·연구·실천으로 이어지는 경희의 평화사상



UN 세계평화의 날/해 제정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입니다. 경희는 세계평화의 날(9월 21일) 제정을 기념해 매년 Peace BAR Festival을 개최합니다.

9월 21일은 세계평화의 날입니다. UN은 1981년, 세계평화의 날과 함께 세계평화의 해(1986년)를 제정했습니다. 당시 세계는 동서 냉전이 극에 달해 전쟁 발발이 우려되던 시기였습니다. 세계평화의 해 첫날, 미국과 소련 정상은 평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양국은 군축 회담을 성공적으로 타결했고, 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40년 가까이 지속돼온 냉전체제의 긴장이 완화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평화의 날/해는 냉전 시대를 종식시킨 하나의 계기로 평가받습니다. 세계평화의 날/해 제정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입니다.

조영식 박사는 1981년 7월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린 6차 세계대학총장회(AUP) 총회에서 “UN이 세계평화의 날/해를 제정하도록 촉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학 총장 600여 명은 전원 일치로 이 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한국은 UN 회원국이 아니어서 의안을 제출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경희는 코스타리카 정부의 도움을 얻어 의안을 UN에 제출했습니다. 그 해 11월 36차 UN 총회는 세계평화의 날/해 제정안을 157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文化世界(문화세계)의 創造(창조)'가 새겨진 교시탑

### **“인류 위해 일하고, 평화 위해 싸우세”**

경희는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평화로운 미래사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학문적 소임을 다하되, 그 학문이 더 나은 인류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경희의 학풍입니다. 그래서 경희의 교가는 “온오한 학술 연구”를 노래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 의지, “인류 위해 일하고, 평화 위해 싸우세”를 호소합니다.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꿈꾸는 대학



### **‘교육에서 학습으로, 학습에서 실천으로’**

학생은 더 나은 미래, 더 큰 미래를 꿈꾸며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상상력과 창의력, 실천력을 갖춰나가고, 교수는 석학, 대가, 거장의 꿈을 추구하는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꿈꾸는 대학’,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도전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학생과 교수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대학’. 이것이 경희가 추구해 온 대학의 참모습입니다. 이를 위해 교학상장(敎學相長)의 대학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교육에서 학습으로, 학습에서 실천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술 역량을 강화해 온 결과, 경희는 '국가고객만족도(NCSI)'에서 5년 연속(2015~2019년) 사립대학교 부문 2위에 올랐습니다. 사진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교육 콘텐츠를 도입한 강의 모습

### '더 많은 미래, 더 나은 미래'

경희가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이 더 많은 미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에서 학습으로, 학습에서 실천으로'를 기조로 새로운 배움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 교양·전공·실천 연계 강화한 경희 교육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이자 학술기관으로, 교육, 연구의 탁월한 성취를 쌓아가는 것이 본연의 책무입니다. 경희는 그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학술과 실천을 결합하면서 문명 전환을 선도해 왔습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교육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융합형 전공교육을 실시하고, 학술 성취가 개인의 성취를 넘어 사회와 세계로 이어지는 실천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계시민 의식 함양과 지구적 난제 해결을 목표로 교육, 연구, 실천을 결합한 사회공헌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지구적 실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실천 및 봉사 활동과 연계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 '더 많은 미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힘을 키워줍니다.

---

##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향한 '후마니타스' 교육

후마니타스(Humanitas)는 로마 철학자 키케로가 인간의 인간다움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한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내포합니다. 경희는 교양교육을 혁신하면서 후마니타스의 의미를 재정의했습니다. 경희의 후마니타스는 자신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단히 자신을 변모시키고 재발명해 나가는 인간이자,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문명을 성찰하고 더 나은 문명을 모색하는 인간입니다. 이를 위해 후마니타스칼리지는 학문 경계를 가로지르는 융합 교육,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성찰 교육, 구체적 현장과 연계되는 실천 교육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인류 문명과 우주를 탐색하며 사유의 폭을 확장하고, 세계시민 의식과 역량을 키워갑니다. 이는 세계시민교육, 창의적 연구·실천 영역을 학생 스스로 개척하는 독립연구 등을 통해 확대됩니다.

---

## 국내 대학 최초 시행 전교생 '세계시민교육'

경희는 국내 대학 최초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글로벌 차원에서 구성되는 삶의 존재 조건을 이해하면서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방안을 탐색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시대의 세계시민으로서 책임감 있는 삶을 토론하고, 공동 프로젝트(GCP; Global Citizen Project)를 통해 그 사유를 실천으로 확장합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시민의 이름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와 마주하며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 첨단학과 신설· 무전공 입학제도 도입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과 학생들의 전공 탐색 기회 확대를 위해 첨단학과를 신설하고, 무전공 입학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경영대학 빅데이터융합학과,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 생명과학대학 스마트팜과학과, 전자정보대학 반도체공학과에 이어 이과대학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를 신설했습니다. 2025학년도에 무전공 입학제도를 도입해 학생이 원하는 전공과 진로를 찾아가도록 돕습니다. 무전공인 자율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입학생은 1년간 다양한 전공을 폭넓게 탐색한 후, 2학년 진학 시 학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계열에 상관없이 캠퍼스별로 개설된 학부(과)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일부 학부(과) 제외).



경희는 학생이 미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융합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오비스홀

##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 스스로 과제 설정·수행

학생들은 경희 캠퍼스에서 융합형·사회맞춤형 교육에 참여하며 자유롭게 미래를 설계합니다. 학과, 단과대학, 캠퍼스를 넘나드는 융합전공과 다전공을 확대했습니다. 기업과 손잡고 사회맞춤형 트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에 더 집중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해 독립심화학습,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이 관심 주제를 선정해 지도교수와 함께 심층 탐구하고, 최신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경희는 미래교육으로 대전환하고자 학사구조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시와 데이터 분석 교육을 강화하고, 마이크로디그리(Micro Degree)와 학생설계전공을 도입했습니다. 마이크로디그리는 사회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직무를 위한 특화 교육입니다. 학생설계전공은 학생이 진로와 관심 분야에 따라 전공을 설계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 전방위에서 지원하는 사회진출교육

경희는 취업과 창업, 창직(새로운 직종을 만드는 활동)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사회진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삶의 주인으로, 지속 가능한 문명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서울시 캠퍼스타운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산학협력 교육과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전방위에서 지원하는 사회진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률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경희의 취업률은 2021년 66.3%, 2022년 68.9%, 2023년 70.7%로 3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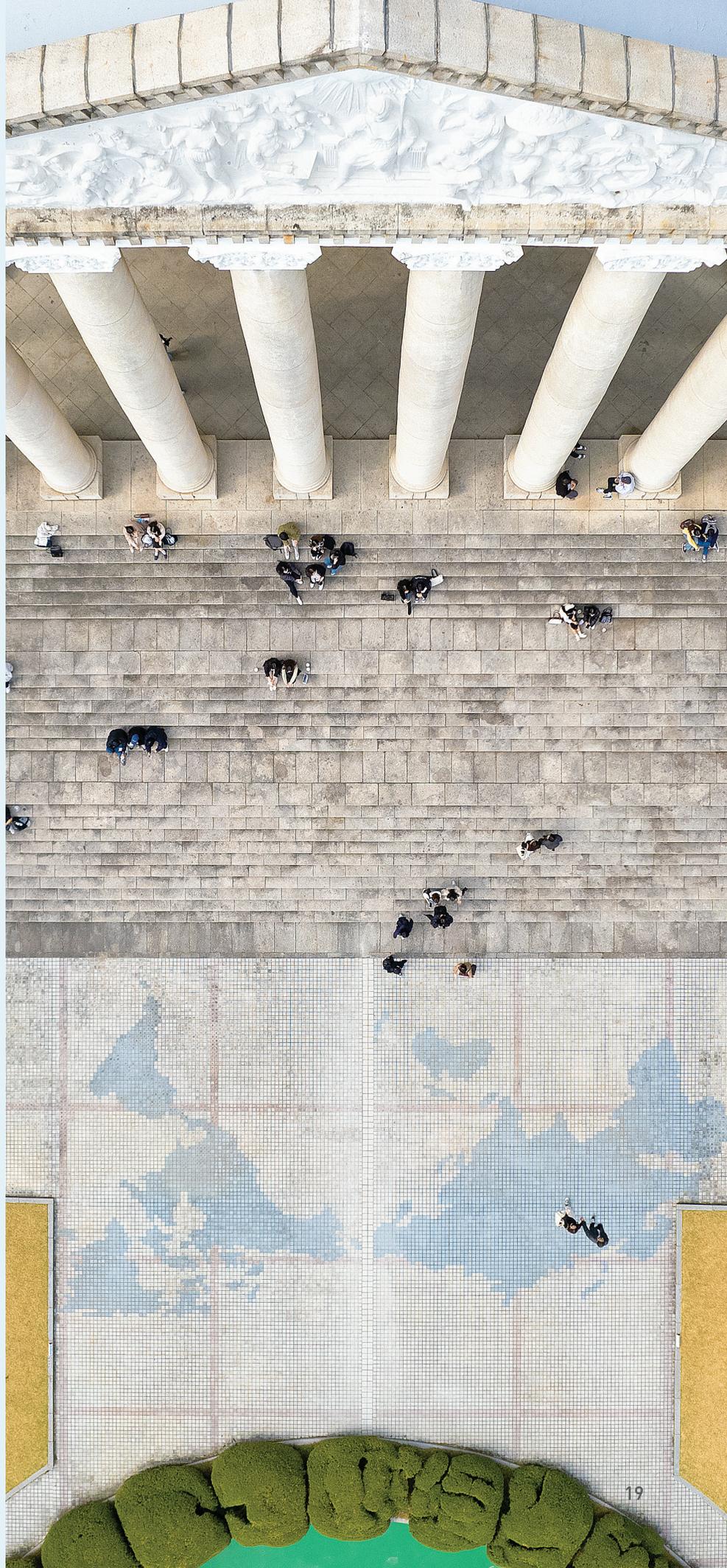
## 꿈에 도전하면 지원하는 '꿈도전장학'

경희는 학생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꿈도전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의 교내 장학금 규모는 국내 대학 1위 수준입니다(2024년 대학정보공시 장학금 수혜 현황 기준).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330만 원에 이릅니다.

### 학습 · 실천 역량 극대화

경희는 학생 스스로 과제를 설정 및 수행하고 지도교수와 함께 미래를 기획하는 '독립연구', '독립심화학습', '전환21' 등을 개설해 학습과 실천 역량을 극대화합니다. '경희꿈도전 장학'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사진)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은 순수 국내 기술로 지어진 석조 건물입니다. 본관 중앙부는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741호에 등재됐습니다.





우주에 도전하는  
경희 연구력



## 우주 기상 연구에 이어 달 탐사에 도전하다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KPLO; 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가 2022년 8월 5일 오전 8시 8분(한국시간)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우주로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다누리는 달 궤도를 돌면서 달 착륙 후보지 탐색, 자기장 측정, 달 자원 조사,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달 표면 관광 지도 제작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임무 수행을 위해 6개의 탑재체가 실렸는데, 이중 자기장측정기를 경희가 개발했습니다. 다누리 탑재체 중 유일하게 대학에서 개발한 탑재체입니다. 경희의 연구력이 우주로 향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국제캠퍼스 천문대

### 지구적 난제 해결에 나서다

경희는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를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보편 가치를 창출합니다. 기후변화, 생태·환경 위기 등 지구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실용적·실천적 신지식을 창출하는 동시에 세계 수준의 수월성을 유지하는 연구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

## 대학의 연구 역량, 기후 문제 해결· 난치병 치료에 활용

QS 세계대학평가에서 경희는 2006년 506위로 순위권에 처음 진입한 후, 순위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2020년에는 세계 236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습니다. 산업계 평판도는 꾸준히 올라 2023년 세계 22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원동력은 우수한 연구력입니다.

경희의 연구력은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술 역량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동시에 국내외 대학, 정부, 기업, 국제기구, 시민사회와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경희의 설립 정신에 맞닿아 있습니다. '문화세계의 창조'를 계승·발전하며 인류와 문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해 온 경희가 학술 역량을 결집해 기후 위기, 식량난, 에너지 고갈, 난치병 문제 등 지구적 난제 해결에 나선 것입니다.

---

## 연계협력 클러스터 통해 연구력 결집

경희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대응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학술·실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미래과학, 인류문명, 문화예술, 사회체육 등으로 나누는데, 바이오·헬스와 미래과학 클러스터가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는 경희의 강점 중 하나인 의·생명 분야를 연계·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정밀의학, 재생의학, 암, 알츠하이머병(노인성 질환), 천연물 신약, 의료기기, 건강노화 분야가 중심입니다. 미래과학 클러스터는 기초과학과 공학의 연계협력을 통해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미래사회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한 융합연구 분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 에너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우주 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류문명 클러스터는 빈곤, 기아, 물 문제, 빈부격차, 핵·테러 위험, 생태 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합니다. 문화예술 클러스터의 목표는 교육, 문화, 관광, 의료 융합하는 새로운 문화예술 중심지를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회체육 클러스터는 인간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사회화, 운동 연구 등을 추진합니다. 경희의 연계협력 클러스터는 새로운 융복합 분야 창출은 물론, 기존 연구를 특화해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

## 동영상 압축 기술 국제표준 특허 선점

그간 경희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세계 최초로 학부 과정에 정보디스플레이학과(현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를 개설하고,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다수의 세계 최초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박막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플렉시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시제품과 고성능 평판 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구현했습니다. 동영상 압축 기술 분야에서도 연구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국제표준 특허를 선점했습니다.

최근에는 미래사회를 이끌 과학기술 학문의 융복합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공동체를 구현하는 연구와 지구적 난제에 도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 아래 융합기술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 헬스케어, 인공지능·빅데이터, 에너지·환경, 실감미디어·디지털트윈, 우주·미래모빌리티, 첨단소재, 스마트팜, 인공지능건축, 에이지테크 등 융합센터와 스마트컨벤티비티연구센터, 양자정보융합기술센터, 근골격계질환 예방운동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NASA 무인 달 착륙선 과학 탑재체 개발 참여

2022년 발사된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에 경희 기술력이 탑재됐습니다. 다누리에는 과학 탑재체 6종이 실렸는데, 이중 자기장측정기를 우주과학과 진호 교수 연구팀이 개발했습니다. 다누리 탑재체 중 유일하게 대학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다누리가 발사된 후에도 국제협력 연구를 지속해 2024년 달 뒷면에서 특이한 자기장 특성을 보이는 이름 없는 충돌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구에 조선시대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남병철의 이름을 붙일 것을 국제천문연맹(IAU)에 신청해 허가받았습니다. 달 충돌구에 한국인 이름이 붙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경희는 다양한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주관하는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CLPS)가 대표적입니다. CLPS는 50여 년 만에 인간을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한국은 탑재체 4종 개발을 맡았습니다. 그 중 가장 먼저 개발된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가 2023년 미국으로 이송된 후 기능시험을 마쳤습니다. 이 탑재체를 우주과학과 선종호 교수 연구팀이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 개발했습니다. 대학원 우주탐사학과 김성수 교수 연구팀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주도하는 달 표토 3차원 영상카메라(GrainCams)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한국 최초'의 도전에 힘 실는 경희 기술력

경희는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WCU) 육성사업, BK21 사업 등 대형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유럽연합(EU)의 우주 개발 주관기관인 유럽항공우주국(ESA), 미국 UC버클리 우주과학연구소 등과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우주 탐사 연구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그 역량을 기반으로 '한국 최초'의 도전에 힘을 실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 최초의 기상 관측 전용 위성 '천리안 2A호'의 우주 기상 탑재체를 개발한 데 이어 2022년에는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의 과학 탑재체를 개발했습니다.

## 경희의 새 도전 '양자과학' 노벨상 수상자 센터장 초빙

우주과학 분야에서 '한국 최초'의 도전에 힘을 실어 온 경희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우주과학 분야를 포함해 바이오헬스, 양자과학, 첨단소재, 인공지능(AI), 인류문명을 6대 중점분야로 선정해 추진 중입니다.

양자과학 분야에서는 석학과 우수 연구자를 모아 2024년 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래핀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싱가포르국립대 교수와 한국인 최초의 벤저민 프랭클린 메달 수상자인 김필립 하버드대 교수를 ES(Eminent Scholar)로 초빙했습니다. 노보셀로프 교수는 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아 경희의 양자 연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는 양자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경희의 양자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차세대 양자 물질', '맞춤형 양자소자 개발', '최적화 검증' 등의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이에 앞서 경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물리학과 손석균 교수)에 선정됐습니다. 사업 선정을 기회로 삼아 양자 통신 상용화를 위한 한계 극복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천리안 2A호 우주 기상 탑재체, 다누리 자기장측정기 개발 등 우주 분야에서 탁월성을 쌓아온 경희는 관련 분야에서 연계협력을 확대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에 경희 기술력 탑재

경희는 2012년과 2013년 초소형 인공위성을 발사한 이후 지속해서 '우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상 관측 전용 위성 '천리안 2A호'의 우주 기상 탑재체 개발, 2022년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의 자기장측정기 개발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5년 발사 예정인 무인 달 착륙선에 탑재되는 달 우주환경 모니터도 개발했습니다. 경희가 천문학 및 태양활동과 우주환경 분야에서 선두 연구 그룹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



## 대학의 사회적·지구적 책무, '공공성' 추구

세계 23위, 세계 사립대 2위. 경희가 타임스고등교육(THE)이 발표한 '2024 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받은 성적입니다. 이 평가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대한 대학의 기여도를 측정합니다. 연구 성과를 평가하더라도 '인류의 보편적·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인가'를 들여다봅니다. 대학의 사회적·지구적 책무, 즉 '공공성'을 평가 잣대로 삼아 인류와 문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살피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표에 따라 사회공헌에 앞장서 온 대학이 상위권에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경희의 사회적·지구적 책무 실현의 탁월성이 입증됐습니다.



광릉캠퍼스 평화복지대학원 '평화의 탑'

### 평화는 개선(凱旋)보다 귀하다

평화복지대학원 '평화의 탑'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경희의 평화사상을 함축하는 이 말은 전쟁 없는 평화를 뜻하며 '인간적인 문화세계' 건설로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자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성취하되, 어려운 타인과 우리 삶의 터전을 위해 그 성취를 나누자는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

## 평화로운 미래사회 향한 경희의 설립 정신

경희의 설립 정신 '문화세계의 창조'는 인간의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 전일적(Holistic) 사유와 함께하는 평화로운 미래사회를 향합니다. 경희는 인간이 쌓아 올린 이념과 편견의 장벽을 넘어 평화로운 인간의 인간적인 세상을 열어가자는 사유 세계를 펼쳤습니다. 모든 것의 초연결성과 교호(交互) 작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의지적, 의식적 노력이 만들어 내는 창조적 가능성을 포괄한 전일적, 전환적 사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사유 세계와 함께 주어진 시대의 난제를 돌파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인류의 책무이자,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경희의 오랜 전통인 '학문과 평화'와 평화의 전당에 새겨진 '인간에겐 사랑을, 인류에겐 평화를'이란 문구는 그 정신을 함축합니다.

---

## 유네스코 평화교육상 교육기관 최초 수상

'문화세계의 창조', '학문과 평화'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경희의 노력은 설립 초기인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희는 농촌운동, 자연보호운동, 밝은사회운동, 인류사회재건운동, 네오르네상스운동,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시대와 국가사회가 초래한 인도적·지구적 난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각종 국제 학술회의를 주도해 위기에 처한 세계를 마주하면서 교육을 통한 평화 구현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1965년 세계대학총장회(AUP) 창립, 1981년 UN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에 선도적 역할을 한 것은 경희의 학문과 평화 운동이 지구사회 차원으로 확장된 상징적 결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과 연구, 실천의 결합이 경희 학풍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83년 세계 최초의 평화교육기관인 평화복지대학원을 설립했으며, 1986년에는 『세계시민교과서』와 『세계평화대백과사전』을 펴냈습니다. 유네스코는 평화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1993년 교육기관 최초로 경희에 평화교육상을 수여했습니다.

경희는 유네스코 평화교육상 수상 후에도 서울NGO세계대회 개최(1999년), 사이버대학교 설립(2001년), 세계시민포럼 및 세계시민청년포럼 개최(2009년), 후마니타스칼리지 출범(2010년), 세계대학총장회(AUP) 창립 50주년 기념식 공동 개최(2015년), 미래문명원 체제 출범(2021년)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경희가 추구해 온 '문화세계의 창조'와 '학문과 평화'의 가치를 세계시민사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

## 지속 가능한 인류와 문명의 미래에 기여하는 교육·연구·실천 확대

경희는 개교 60주년(2009년)을 기점으로 '지구적 존엄 구현(Towards Global Eminence)'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인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학술 성취가 사회와 세계에 기여하는 지구적 실천을 확대했습니다. 2009년 세계시민포럼(WCF)과 세계시민청년포럼(WCYF)을 창립한 것은 그 구체적인 실천이었습니다.

'학문과 평화'의 경희 학풍과 전통은 2011년 후마니타스칼리지 설립과 지구사회봉사단(현 글로벌봉사팀) 창설로 이어졌습니다. 경희는 양 기관을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세계시민 의식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지구적 난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교육, 연구, 실천 부문을 창조적으로 융합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화복지대학원은 평화교육과 연구에 기여한 성취를 인정받아 1993년 교육기관 최초로 유네스코 평화교육상을 수상했습니다.

## 지구적 의제 해결 위한 노력 지속

경희는 사회적·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2023년 ESG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 ESG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학생, 직원, 동문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지구시민사회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의 역량을 결집해 사회적·지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을 개최하고, 미원лек처, 석학 초청 특강 등 국제 학술대회와 특강 시리즈를 진행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행사를 대중에 공개해 석학, 전문가, 실천가의 문제의식과 지적 사유를 나누고, 성찰적 전환 의식과 실천 세계를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년 해외봉사단을 파견해 더 나은 지구사회의 길을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추진한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기회로 캄보디아의 농촌개발 모델을 연구·개발한 경희는 현지 주민의 자생 역량을 키워 지속 가능한 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업 종료 후에도 해외봉사단을 파견해 국외 거점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구적 실천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정부기구, 세계 교육·학술기관, 시민사회와 함께 지구적 이슈 및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온 경희는 그동안 이뤄온 학술 성취를 기반으로 글로벌·공공 협력을 활성화해 사회와 시대가 요청하는 지속 가능한 문명의 학문적 토대를 강화하고, 지구의 공적 의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합니다.



경희는 매년 해외봉사단을 파견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구적 실천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캄보디아 해외봉사단 활동 모습

### **‘인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구적 실천’을 확대하다**

경희는 학문의 탁월성을 이뤄내면서 동시에 학문의 궁극적 목적인 사람, 인류와 문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상을 견지해 왔습니다. 개인과 사회,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속해서 모색하며 ‘더 나은 자신과 세계’를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경희의 전통입니다.



‘학문과 평화’의 전통  
세계로, 미래로



## 국제화 국내 1위, 국제 학계 인지도 향상

경희가 타임스고등교육(THE)이 2024년 발표한 아시아대학평가의 국제화 부문에서 국내 대학 1위를 차지했습니다. THE 아시아대학평가의 국제화 부문은 외국인 교원 비율과 외국인 학생 비율, 파견 교환학생 비율, 국제 공동연구 비율 등 4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국제화 순위가 높다는 것은 경희에 대한 외국인 학생과 국제 학계의 인지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글로벌 교류 협력을 확대해 온 결과입니다. 최근 경희는 학계, 시민단체, 국제기구와 함께 경희의 전통 '학문과 평화'의 의미를 심화·확대해 지구문명의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희는 매년 여름방학에 세계 석학과 국제 활동가를 초청해 'Global Collaborative Summer Program'을 진행합니다.

### 글로벌 교류 협력으로 국제화 선도

세계와 인류를 향한 교시, 교육이념에 따라 경희는 설립 초기부터 국제화에 힘써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문명의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지구적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합니다.

---

## ‘세계 속의 경희’ 83개국 618개교와 교류

경희의 교사와 교육이념은 언제나 ‘세계’와 ‘인류’를 향합니다. 경희는 창학 초기부터 학문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한편, 세계 대학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으로 ‘세계 속의 경희’를 구현해 왔습니다. 그 노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희는 전 세계 83개국 618개교와 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매년 1,900여 명의 학생을 해외에 파견하고, 전 세계에서 4,300여 명의 학생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경희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5,700명에 달합니다.

세계와 인류를 향한 경희의 노력은 1965년 세계대학총장회(IAUP) 창립을 계기로 본격화했습니다.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는 “고등교육의 힘으로 인류평화를 구현한다”는 신념 아래 IAUP 창립을 이끌었습니다. IAUP는 세계 각국 대학 총장의 상호협조를 통해 학술문화를 향상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구현한다는 목적으로 창립했습니다.

IAUP 창립총회는 1965년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개최됐습니다. 3년 후, 1968년 6월 18일 열린 2차 IAUP 총회는 경희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경희는 국제 교류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문명의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고, 세계평화를 위한 이론적·실천적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

## UN/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국제 교류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온 경희는 해외 대학과 교환학생, 전공연수, 단기연수, 복수학위 등 다양한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어학과 전공교육 관련 연수뿐 아니라 문화 교류 등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타 문화 이해 능력 향상을 돕고, 다양한 교육과 연구 기회를 제공합니다.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교류 협력 수준을 심화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UN/국제기구 인턴십’입니다. 국제 무대에 진출하고자 하는 재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년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선발해 UN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와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유엔인권이사회(UHRC) 자문위원회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국제 인권을 주제로 한 사전 연구 활동 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HRC 자문위원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

## 석학·활동가와 함께하는 강의 및 연구 확대

경희는 석학을 영입해 학생들에게 세계 지식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국제 학술대회와 특강 시리즈를 연중 개최하며, 매년 여름방학에는 Global Collaborative Summer Program(GC)을 개설합니다. GC는 미국 프린스턴대 존 아이켄베리 교수, 경희대 이리나 보코바 석좌교수(전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석학과 국제 활동가, 국제기구 고위 실무자가 참여하는 경희의 대표적인 국제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경희 캠퍼스에서 지구적 의제를 다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심화 교육이 펼쳐집니다. 활발한 국제 교류 협력 덕에 많은 외국인 학생이 경희대를 찾고 있습니다. 2024년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경희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두 번째로 많은 대학입니다.



경희는 '2024 THE 아시아대학평가'에서 국제화 부문 국내 대학 1위에 올랐습니다.

### 고등교육의 공적 책무 · 지구적 소임의 중요성 공유

2015년 5월, 경희는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열린 '세계대학총장회(IAUP)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공동 주최했습니다. IAUP 창립에 기여한 경희의 공적을 높이 평가한 IAUP가 창립 50주년 행사의 공동 주최를 제안하면서 성사됐습니다. 경희는 2011년에도 유사한 제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UN 산하 기구인 UNAI(UN Academic Impact)가 세계평화의 날 30주년을 기념해 준비 중인 국제회의를 경희대가 공동으로 주최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 왔습니다.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최초로 제안한 것이 경희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의를 받아들여 2011년 9월 'UNAI-경희 국제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두 행사는 고등교육의 공적 책무와 지구적 소임에 관한 중요성을 공유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뉴욕 UN 본부와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동시 진행된 UNAI-경희 국제회의에는 5천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고등교육의 지구적 실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 '더 나은 미래' 위해 글로벌 · 공공 협력 강화

경희는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시야를 확대해 지구적 차원의 공공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UN 세계평화의 날 제정을 기념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Peace BAR Festival은 최근, 세계시민사회단체연합(CoNGO), 세계예술과학아카데미(WAAS), 로마클럽 등 세계 싱크탱크, 국제기구와 함께 지구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희가 글로벌 · 공공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래세대에게 더 큰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삶의 행복과 가치, 더 나은 미래는 우리 삶의 터전이 건재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장과 개발 편향의 현대적 삶의 양식이 우리 삶의 유일한 터전인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주어진 막중한 책무라는 판단 아래 경희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처한 개인과 사회,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대학의 길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 **‘미래세대의 더 큰 미래’를 향해**

경희는 그동안 이뤄온 학술 성취와 5대 연계협력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글로벌·공공 협력을 활성화해 지구적 난제 해결에 나섭니다. ‘인간과 지구의 더 나은 미래’, ‘미래세대의 더 큰 미래’, 경희가 펼쳐나가는 미래입니다.

(사진) 광릉캠퍼스 평화복지대학원 본관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미래대학 ‘꿈의 공간’으로



## 지속 가능한 문명 건설을 선도하는 미래대학 인프라 확충

학생이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성장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경희가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인정받아 '2024 THE 대학 영향력 평가'의 산업·혁신·인프라에서 세계 19위에 올랐습니다. 이 평가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해 대학의 사회적·지구적 책무 수행을 독려합니다. THE는 SDG 9번 목표인 산업·혁신·인프라 평가를 통해 대학이 자체 회복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포용적·지속 가능한 산업화와 혁신을 이루도록 장려합니다. 경희가 지속 가능한 문명 건설을 선도하는 미래대학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캠퍼스 본관

### **‘학술 경희’의 미래를 건설하다**

‘경희 캠퍼스’는 국내에서 녹지 공간이 가장 많은 아름다운 캠퍼스로 손꼽힙니다. 경희 캠퍼스가 그 명성을 넘어 미래대학 ‘꿈의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학술의 탁월성 위에 희망의 ‘문명 전환’을 선도하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으로 도약합니다.

## 대학의 비전 반영한 경희 캠퍼스

경희는 1954년, 국내 대학 최초로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서울캠퍼스를 건설했습니다. 마스터플랜에는 본관 석조전을 비롯해 현재 서울캠퍼스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건축물과 자연경관 조성 계획이 모두 포함돼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대학의 이념과 가치, 비전에 따라 캠퍼스의 규모를 설정하고, 그에 걸맞은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를 계획해 건물을 세웠습니다. 1979년 시작된 국제캠퍼스 건설도 그 연장선에서 추진됐습니다.

마스터플랜에 따른 건설로 명확한 비전이 캠퍼스에 반영됐고, 체계적이면서 조화로운 캠퍼스가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교문 등용문(登龍門)에서 '文化世界(문화세계)의 創造(창조)'가 새겨진 교시탑, 교시가 상징적으로 표현된 본관 석조전, 그 우측 언덕으로 웅장하게 솟아오른 평화의 전당으로 이어지는 캠퍼스에는 경희의 미래지향적 이상향이 담겨있습니다.

21세기를 맞아 경희는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2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새로운 마스터플랜인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에는 교육, 연구, 실천의 창조적 융합을 통해 '대학다운 미래대학'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경희의 미래비전이 반영됐습니다. 경희는 학술의 탁월성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구공동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새로운 명문'의 인프라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 '대학다운 미래대학' 향한 꿈을 담아내는 인프라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 1단계 공사를 완공한 경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등 외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문과 평화'의 전통과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향한 꿈을 담아내는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서울과 국제 양 캠퍼스와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미래과학 클러스터 등을 아우르는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2017년에는 구성원의 꿈과 포부를 지원하고 미래대학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Space21'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국제캠퍼스 종합체육관 '선승관(善昇館)'을 개관한 데 이어 서울캠퍼스 한의과대학, 이과대학, 간호과학대학, 행복기숙사(공공기숙사) 건물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현재 건물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Space21'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차 없는 거리 조성, 산학협력관 건립, 글로벌타워 신축이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Space21' 사업으로 경희 캠퍼스는 최적의 교육, 연구, 실천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사진 왼쪽부터) 국제캠퍼스 종합체육관 '선승관(善昇館)', 외국어대학 로비

### 학문 융합 지원·촉진하는 융합기술연구원 개소

경희는 학문 간 융합 지원과 촉진을 위해 융합기술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스마트커넥티비티, 바이오헬스케어, 인공지능·빅데이터, 실감미디어·디지털트윈, 에너지·환경, 우주·미래모빌리티, 첨단소재, 스마트팜, 양자정보, 에이지테크, 인공지능건축, 근골격계질환 예방운동 분야를 활성화하고자 산하에 1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융합센터는 학문 간 벽을 허물어 융합연구, 융합교육, 산학협력의 근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AI 연구·실습 위한 서버실, X-Space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 중심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목표로 AI 서버실과 X-Space를 마련했습니다. 대규모 서버를 구축해 안정적인 연구와 실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실감미디어 실습 공간인 X-Space는 메이커스페이스나 산학협력을 위한 공간,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의 강의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모델링 기술과 실시간 메타버스 플랫폼을 연동한 가상 강의실은 원격 현존감을 극대화해 원격 강의 수강생에게도 현장 수업 못지않은 상호작용을 제공합니다.

### 오픈랩, 창업센터 등 학생 창업 활동 지원

경희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과 캠퍼스타운사업 추진, 창업보육센터와 창업센터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창업 지원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현실화해 나가는 공간인 오픈랩(Open Lab)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랩에서는 메이커(Maker) 교육과 각종 장비 교육, 특강, 체험 프로그램이 수시로 열립니다. 또한 학생기획단을 두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해 교내 창업 활성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실감미디어 실습 기자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된 X-Space



서울캠퍼스 한의과대학, 이과대학, 간호과학대학

### **‘대학다운 미래대학’ 인프라 구축**

경희는 ‘학문과 평화’의 전통과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향한 꿈을 담아내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술적 탁월성 위에 세계 명문으로 도약하고 그 성취를 실천으로 연결해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전 학문 분야 아우르는 서울·국제·광릉 3개 캠퍼스

한국전쟁 전후에 판자로 지은 교사 세 채에서 그 역사를 시작한 경희대학교는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광릉캠퍼스를 갖춘 국내 굴지의 종합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설립 초 3개 학과에 불과했던 교육 편제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의학, 공학, 예술, 체육 등 전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23개 단과대학, 95개 학과(부), 15개 대학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경희는 각각의 캠퍼스를 특성화한 종합캠퍼

“  
피란지 판자 교사에서  
3개 학과로 시작한  
경희는 3개 캠퍼스,  
95개 학과(부)를 둔  
종합대로 성장했습니다

”

스로 발전시켜왔습니다. 서울캠퍼스는 인문사회, 의학, 기초과학, 예술 등 순수학문 중심으로, 국제캠퍼스는 공학, 응용과학, 국제학, 현대예술, 체육 등 응용학문 중심으로 특성화했습니다. 광릉캠퍼스 평화복지대학원은 경희의 평화사상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왔습니다. 경희대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 수는 1,378명, 직원 수는 506명입니다. 재학생 수는 3만 5천 명에 달합니다.

##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는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아래 학술과 실천의 결합으로 평화로운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경희정신을 싹틔우고 꽃 피운 '학문과 평화'의 요람입니다. 유치원에서 대학원에 이르는 일관교육체제, 전인교육체제, 전일적 학술체계, 지구적 실천 운동이 서울캠퍼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전화** 02)961-0114



## 국제캠퍼스

국제캠퍼스는 국가가 시급히 요청하는 인재를 키워낸다는 설립 목표에 따라 사회맞춤형 교육, 산학협력 교육, 국제화 교육 등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융합대학과 융합전공을 신설해 선도적인 융합교육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전화** 031)201-3114



## 광릉캠퍼스

광릉캠퍼스에는 국내 최초의 전문적인 평화교육기관 '평화복지대학원'이 자리합니다. 평화복지대학원은 '세계와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중환문명사회를 선도할 실천적 지식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평화 구현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세계 대학 최초로 유네스코(UNESCO) 평화교육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195

**전화** 031)570-7012~6





## 학술 탁월성 추구하는 단과대학 23개 · 대학원 15개

경희대학교는 단과대학 23개, 대학원 15개 (일반대학원 1개, 전문대학원 4개, 특수대학원 10개)를 두고 있습니다. 각 단과대학과 대학원은 미래지향적인 교육 모델을 창출하고, 교육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창조적 전문가를 길러냅니다.

학문의 다양성과 탁월성을 존중해 온 경희는 자율운영제도를 통해 단과대학(원) 및 부속기

“  
단과대학과 대학원은  
학과별 · 전공별 특성을  
살려 나가면서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관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단위기관에 학사, 인사, 발전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권한을 부여한 자율운영으로 각 단과대학(원)은 학과별 · 전공별 특성을 살려 나가면서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전 학문 분야가 고루 발전했습니다. 각 학문 분야의 탁월한 성취는 대학발전으로 이어지며 각종 대학평가에서 순위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단과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 경희는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역할과 목적을 재확인하고 교양교육을 혁신해 2011년 전문 교양교육기관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설립했습니다. 무엇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치열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대학교육과 시민교육을 연결하는 창의적 교육 방법을 통해 삶과 문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게 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넘나드는 융복합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율전공학부** 학생들은 1년간 특정 전공에 소속되지 않은 채, 인문학, 사회학, 경영학, 경제학, 자연과학(교양)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전공 탐색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후, 자기 적성과 소질에 따라 전공을 선택합니다. 자율전공학부에 남아서 글로벌리더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법학을 기본으로 경제학, 정치외교학, 행정학, 미디어학, 경영학을 트랙전공으로 선택해 전공영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진로 목표에 따라 1년 동안 다양한 전공을 탐색하고 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생들은 전통적인 학문 경계를 넘어선 융복합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학문 소양을 쌓으면서도 자신만의 고유한 학습 여정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계열에 상관없이 국제캠퍼스 개설학부(과)에 한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단, PostModern음악학과 제외).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응용영어통번역학과, 사학과, 철학과를 두고, 인간과 자유를 존중하는 인문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학생의 개인 역량과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목표 달성 자격증, 해외 전공연수, 성취(점프) 장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미디어학과,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국제통상학전공, 국제금융투자학전공)에서 3천 명에 달하는 학생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이슈를 둘러싼 문제 해결, 통상·금융 분야의 글로벌화와 발전에 관한 심층 교육과 연구를 진행합니다.

**경영대학** 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 빅데이터응용학과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를 실현해 나갈 경영 인재를 길러냅니다. 책임경영, 의료경영, 금융보험, 재무회계, 빅데이터경영 등 경희대 경영대학의 5대 강세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기여 확대는 물론, 미래학과 역사, 경영철학에 근간을 두면서 다가올 사회를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미래경영 분야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호텔관광대학** '2024 상해 학문 분야 평가(GRAS)'에서 세계 15위에 올랐으며, 호스피탈리티·관광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Hospitality경영학과, 조리&푸드디자인학과, 관광·엔터테인먼트학부(관광학과,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글로벌Hospitality·관광학과, 문화관광산업학과, 조리산업학과로 편제를 개편했습니다. 복수학위제(휴스턴대, 홍콩이공대), 디즈니 인턴십 등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과대학**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지리학과,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에서 자연과학의 기초와 응용을 두루 연구·교육합니다. 유관 기관으로 기초과학연구소, 한국조류연구소 등 연구소, 첨단 연구 기자재를 갖춘 중앙기기센터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센터, 각종 생물 표본을 보유한 자연사박물관 등을 두고 있습니다.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주거환경학과, 의상학과, 식품영양학과를 두고 있으며, 생활과학 내 또는 인접 학문과의 상호교류로 융합 사고를 증진하는 데 주력합니다. 미래 생산적 생활과학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생활서비스 상품의 디자인, 생산, 활용을 모색하고, 학제 간 공동연구를 통해 생활서비스 제품의 생산기술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의예과, 의학과를 통해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의사와 의과학자를 양성합니다. 2025 THE 세계의과대학 순위에서 국내 5위에 올라 그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의과학자를 길러내기 위해 의학연구 교육과정, 학생연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 역량을 갖춘 의료인, 환자 진료와 진단뿐 아니라 의료산업화, 의료창업 등에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의료인을 배출하고자 합니다.

**한의과대학** 한의예과, 한의학과를 통해 통합 의사로서의 자질은 물론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임상외의 연구 인력을 배출합니다. 의학의 다양한 분야뿐 아니라 기초과학, 인문 분야까지 아우르는 융합적 인재를 길러내는 데 주력하고, 기초와 임상교육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타 학문과 연계·융합이 가능한 기초교육, 임상실습센터 활성화를 통한 임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과대학** 학생들은 치의예과, 치의학과 교육을 거쳐 치과 임상외의 치의학 연구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강동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인프라를 활용해 전문적인 임상교육과 체계적인 진료교육을 실시하며, 치의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자율선택실습을 진행해 졸업 후 자신의 진로를 직접 모색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약학대학** 약학과, 한약학과, 약과학과로 구성돼 있으며, 약학, 한약학, 이학, 의학, 한의학, 공학, 농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교수들이 융복합 교육을 제공합니다. 약학 분야에서 바이오 의약품 개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 약사 로봇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 시대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약학 교육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간호과학대학** 간호학과를 통해 동서 간호의 통합적 접근으로 전문직 간호 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 역량을 인정받아 '2023 QS 세계대학 학문 분야 평가'에서 세계 51~100위, 국내 3위에 올랐습니다. 맞춤형 진로 트랙 '나이팅게일 인증제', 미국 일리노이대학(UIC) 등과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의 진로 탐색을 돕습니다.

**음악대학** 작곡과, 성악과, 기악과(관현전공, 피아노전공)의 학과별 특성을 극대화한 교과과정을 통해 연주자와 작곡가, 음악 교육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자체 무대 시설을 갖춘 리사이틀홀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연주 경험과 음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술대학** 미술학부(한국화전공, 회화전공, 조소전공)를 두고 있습니다. 순수 미술, 뉴미디어아트(비디오아트, 그래픽 디자인, 애니메이션, VR·AR·XR 등 실감형 콘텐츠, 인터랙티브아트 등), 전시 기획과 경영전문가 과정을 포괄해 교육합니다. 학생 재능을 찾아주는 교과과정, 해외대학 학점교류, 사회와 연결된 실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무용학부** 무용예술의 창작활동과 이론화 작업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이론과 실기를 모두 강화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춤에 대한 경험을 쌓고 창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레퍼토리 시스템을 정착시켰습니다. 한국무용전공, 현대무용전공, 발레전공을 두고 있으며, 무용-한의학 트랙을 통해 동·서양 무용 치료의 방법론을 융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원자력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건축공학과,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건축학과(5년제)를 두고 있습니다. VR·AR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실험·실습을 확대하고,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 실무 역량 강화에 주력한 결과, 취업률이 향상됐습니다. 기계공학과 87%, 건축공학과 82%, 신소재공학과 80%를 기록했습니다(2023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전자정보대학** 전자정보공학부(전자공학과, 반도체공학과)와 생체의공학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전자정보공학부는 반도체, 스마트 통신기기 등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전자정보공학 관련 기술을, 생체의공학과는 공학과 의학을 접목해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 기술을 다룹니다. 경희는 통신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역량을 인정받아 2024 상해 학문 분야 평가(GRAS) 세계 33위, 국내 1위를 달성했습니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로 구성됩니다. 컴퓨터공학과는 소프트웨어, 임베디드시스템SW,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관련 교육을, 인공지능학과는 인공지능 핵심 교육을 바탕으로 융합과 실천 능력을 겸비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융합학과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발전할 융합 분야를 선정해 전문화된 융합 지식과 특화된 개발 능력을 교육합니다.

**응용과학대학**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응용화학, 우주과학과를 통해 기초과학에서 첨단 과학기술 활용까지 폭넓은 교육을 제공합니다. 응용수학과는 전산, 금융, 보험, 암호 등에 활용되는 수학을, 응용물리학과는 반도체 및 나노소자, 광학, 응용 전산물리학, 태양 에너지를, 응용화학과는 전통 화학과 더불어 분자설계, 고분자 및 재료, 의약 및 나노 분야를 다룹니다. 우주과학과는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과학 탑재체를 개발하는 등 우주탐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명과학대학** 다양한 생명체의 계승 서열이 밝혀지고 바이오 분야의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생명공학 분야가 의약, 농업, 에너지, 환경, 식품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돼 산업구조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 생명과학대학은 학과 개편을 단행해 유전생명공학, 식품생명공학과, 융합바이오·신소재공학과, 스마트팜과학과 체제를 갖췄습니다. 생물 산업과 생명공학에 관련된 학문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교육·연구하기 위해 생명공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학** 국제학과, 아시아학과(글로벌한국학과)로 이뤄져 있으며, 모든 전공 수업이 영어로 진행됩니다. 국제학과는 국제관계, 동아시아지역, 국제경제, 글로벌 비즈니스, 국제개발협력 등을 융합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국제학 단일 전공, 혹은 각 분야의 심화 전공 트랙으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학과는 아시아 지역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는 외국인인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외국어대학** 프랑스어학과, 스페인어학과, 러시아어학과, 중국어학과, 일본어학과, 한국어학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영미어문전공, 영미문화전공)를 두고,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융복합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합니다. 학생들이 세계 주요 언어와 문화 습득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시대 조류에 탄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전공, 부전공, 융합전공을 확대하고, 교환학생, 해외 전공연수, 인턴십 등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의류디자인학과, 도예학과, 연극영화학과, PostModern음악학과에서 종합적 사고능력을 지닌 창의적 디자이너, 문화 콘텐츠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영상 전문 크리에이터, 창조적 조형 능력을 지닌 실험적 아티스트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술·디자인연구원을 운영합니다.

**체육대학** 체육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스포츠의학과, 골프산업학과, 태권도학과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태권도, 배드민턴, 필드하키, 아이스하키, 럭비, 쇼트트랙, 체조, 양궁 등 운동부를 운영하면서 스포츠 전문인재와 지도자를 키워냅니다. 운동처방실, 측정평가 및 해부생리 실험실, 저압·저산소트레이닝센터 등 실험실과 첨단 체력 트레이닝 시설, 7,900명 규모의 체육교육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 융합전공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하는 융합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학문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새로운 교과과정을 수립했습니다. 해당 융합전공 학과(전공)에 소속된 학생은 기존 전공 대신 융합전공을 주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심화전공, 다전공으로도 열려 있습니다.

**글로벌 엔지니어링 융합전공** 국내 엔지니어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학, 언어, 지역 관련 지식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융합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해결력을 갖춘 전문가를 배출합니다.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프랑스어학과, 스페인어학과, 러시아어학과

**글로벌 문화기술 융합전공** 외국어 소통 능력과 글로벌 문화 감각, 인문학적 상상력을 정보기술(IT)과 결합해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척하고 새로운 산업환경을 선도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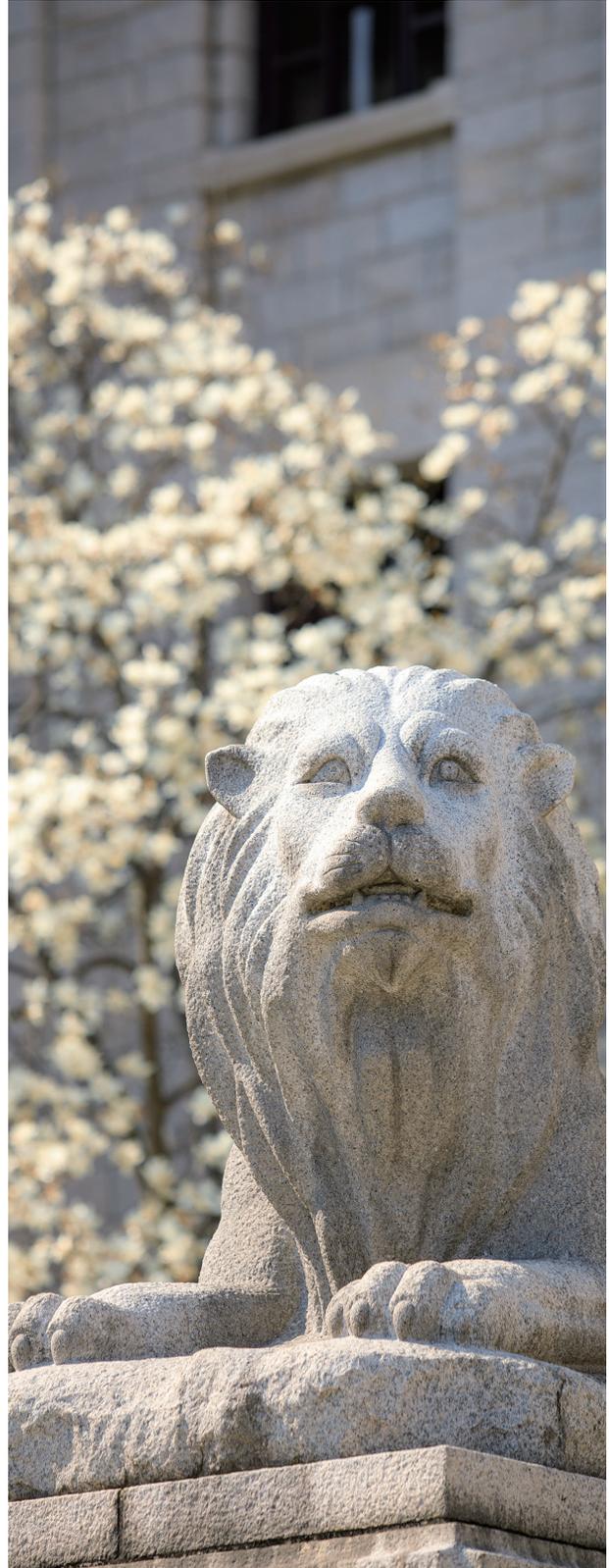
**4D아트 융합전공** 4D 예술에 대한 새로운 교육 및 학습 모델을 활용해 융합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창조적·창의적 역량, 다각적 해석과 이해 능력을 배양해 종합적 사고를 지닌 인재를 길러냅니다.  
도예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아트&테크놀로지 융합전공** 예술과 공학의 경계를 뛰어넘어 교육합니다. 인문학적 사유, 예술적 표현, 첨단기술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가 경쟁력이 되는 융합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디지털콘텐츠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사회과학 융합전공** 사회과학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미래기술사회, 데이터사이언스, 지속가능발전 트랙에서 특화된 심화 교육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사회학과, 미디어학과, 무역학과

**과학지능정보 융합전공** 인공지능·빅데이터 시대의 문제에 근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학 분야의 깊이 있는 사고력과 도메인 지식, 인공지능·데이터 분석 기술을 두루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물리학과, 수학과, 생물학과, 지리학과

**실감미디어 융합전공** 가상현실, HCI(사람과 컴퓨터 상호작용) 기술을 중심으로 UX/UI, 디자인, 게임, 콘텐츠, 문화, 예술, 창업, 경영과의 융합 교육을 통해 실감미디어 산업과 학문을 주도할 전문가를 배출합니다.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디지털혁신공공유대학 참여대학



**K-퍼포밍아트 융합전공** K-Pop 보컬, 뮤지컬 보컬, 연기, 댄스, 뉴미디어 크리에이팅 등 실연 예술(Performing Arts)의 장르 간 균형과 상호 관련성을 극대화하는 교육을 통해 멀티 엔터테이너를 양성합니다.  
연극영화학과, PostModern음악학과

**양자정보 융합전공** 양자통신 및 네트워크 양자컴퓨팅에 적용할 수 있는 양자정보 플랫폼을 실험으로 구현하는 등 실험·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양자정보 물리계를 개발·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응용물리학과, 응용수학과, 응용화학,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우주인공지능 융합전공** 천문부터 태양계 탐사 등 다양한 범주를 다루는 우주과학 분야와 인공지능을 융합한 교과과정을 통해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끌 융합형 인재를 길러냅니다.  
우주과학과, 컴퓨터공학부

일반대학원

전문 학술 이론 연마, 독창적 연구 능력 함양, 전인적 지도 역량 제고를 교육목표로 삼고 있으며, 전공 심화 학습, 융복합 연구와 산학협력, 복수 학위과정, 학과 간 협동과정, 학·연·산 협동과정 등 세계 수준의 교육과 연구,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협동과정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한의학연구원, KT&G중앙연구원,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19개 기관과 공동 운영합니다. 정부의 4단계 두뇌한국(BK) 21, 인공지능 융합혁신인재 양성사업, 융합 미래통신 혁신인재 양성사업, 에너지 인력 양성사업, 인문한국플러스(HK+), 규제과학 인재 양성사업, 지역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사업, 선도연구센터(ERC), 대학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ITRC), 대학중점연구소,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융합형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도 주력합니다. 전 세계 80여 개 국가에서 온 유학생을 포함해 3,500여 명의 일반대학원생들이 수학과 있습니다.

전문대학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협력학과, 국제경영학과, 국제관계학과, 국제개발협력학과를 두고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니다. 전 과목 영어 진행, 외국인 학생 비율 50% 이상 유지, 해외 연수 프로그램 실시, 해외 우수 대학과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제 교류,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수행 등 국제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부 전공이 무엇이든지 간에 법률가로서의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쌓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5개 실무과목을 포함해 121개 과목을 개설했으며, 변화하는 법학교육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해 변호사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용기숙사를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장학제도 및 해외 우수 로스쿨과의 국제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학원** 스포츠의·과학전공, 태권도학전공, 글로벌스포츠산업·경영전공, 스포츠 DNA+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스포츠산업 융복합대학원 선정을 계기로 2024년 신설한 스포츠 DNA+학과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시대를 주도할 새로운 융복합형 인재 양성에 주력합니다.

**동서의학대학원** 동서양 의학을 접목한 신의학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동서양 의학과 생명과학, 영양학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교육과 연구에 매진해 왔으며, 최근엔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문적 융합 대상을 사회학까지 확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친고령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선정으로 개설한 노인학과를 비롯해 동서의학과, 의학영양학과, 융합건강과학과를 두고 있습니다.

특수대학원

**경영대학원** 국내 최초로 최고경영자과정(AMP)과 경영컨설팅 MBA, 의료경영 MBA, 문화예술경영 MBA 과정을 개설하는 등 사회에 필요한 경영전문가를 선제적으로 양성해 왔습니다. 산업 베이스 특화교육을 중요시하며, 경영학과, 세무관리·회계학과, 미디어&커머스 경영학과, 융합경영학과, 의료경영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E-MBA, 부동산학과, Global MBA(외국인), Military MBA(군위탁) 등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물리교육, 미술교육, 상업교육, 생물교육, 수학 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음악교육, 일반사회교육, 화학교육, 중국어교육, 디자인교육, 체육교육, 영양교육, 유아교육, 상담심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교육을 이끌어 갈 예비교원을 길러냅니다. 이외에도 학교 현장의 교원, 교육전문가를 위한 재교육과 연수를 실시합니다.

**간호대학원** 다양한 간호 현장에서 인구사회 구조변화에 따른 요구에 대응하고 국내외 보건 의료 환경을 선도하는 상급 간호 실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노인전문간호사전공, 정신전문간호사전공, 임상간호전문가전공을 운영합니다. 미래 건강위험 예측 및 분석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중재 및 근거 개발 연구를 통해 근거 기반 간호 연구의 수월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대학원** 국가와 시민사회 영역의 공적인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가-시민사회 통합교육기관입니다. 정책학, 간호행정학, 보건정책학, 사회복지학, 시민사회/NGO학, 글로벌거버넌스 등 정부와 시민사회, 로컬과 글로벌을 잇는 전문 분야를 다룹니다. 최근에는 이들 분야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소양을 키워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계약학과를 개설해 현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평화복지대학원** 세계평화를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영구히 구현하는 길을 걷는 평화 지향적인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인류평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교육하면서 평화 구현에 기여한 실천적 노력을 인정받아 대학 최초로 1993년 유네스코(UNESCO) 평화교육상을 받았습니다. 유엔평화학과(유엔평화학전공)와 국제평화-거버넌스학과(국제평화전공, 평화안보정책전공)를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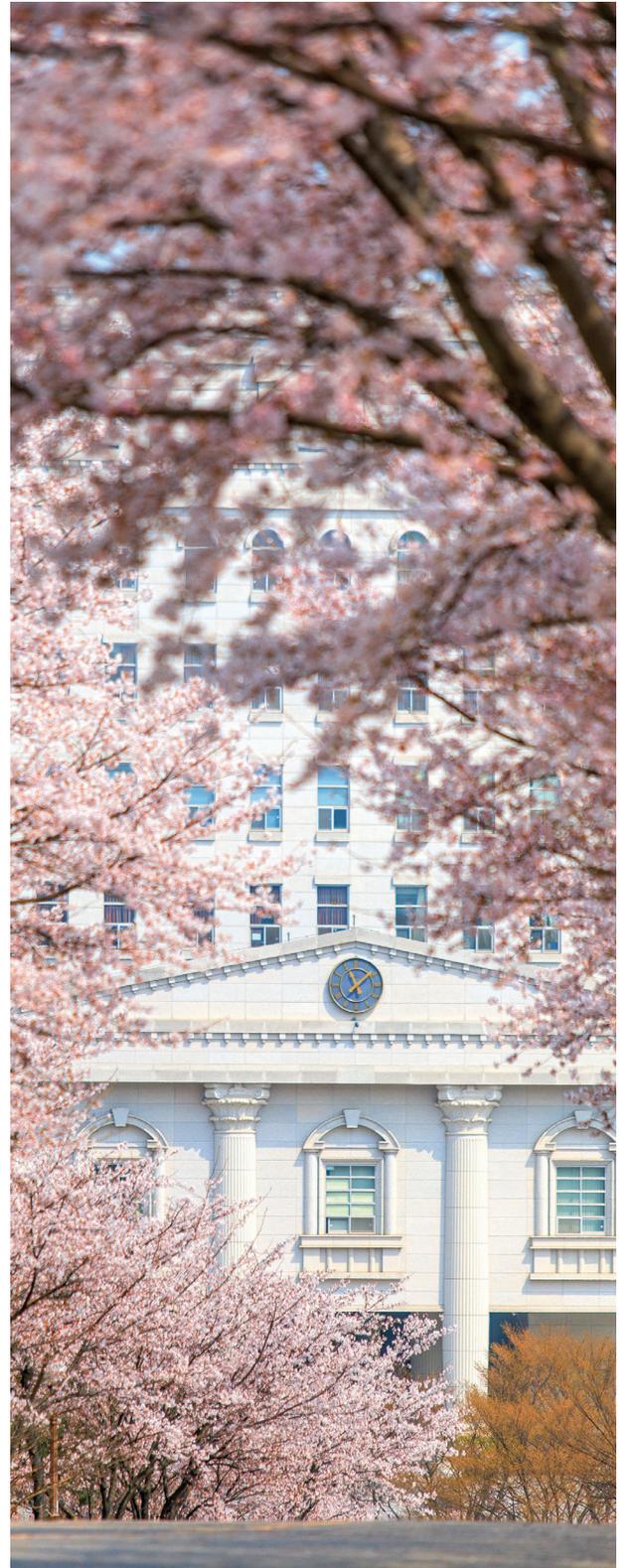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미디어의 미래를 열어가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저널리즘학과, 전략커뮤니케이션학과, 문화콘텐츠학과, 디지털미디어플랫폼학과를 개설했습니다. 1인 미디어 전문가, 미디어 커머스 전문가,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K-Culture 전문가, 메타버스 전문가 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대학원** 기업법, 자산관리법, 지적재산법, 입법, 공법, 경찰·안전법, 중국법, 건설법, 조세법, 관세법 등 분야별로 이론과 실재를 체계적으로 연구·교육해 국제 감각과 전문성을 겸비한 법무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기업법학과, 공공법학과, 중국법학과, 건설법학과, 조세법학과를 두고 있습니다. 미래 법률지도자 양성 특별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대학원** 관광학 석사과정에 현장·실무·사례 중심의 MTA(Master Tourism Administration) 교육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호텔경영학과, 관광학과, 조리외식경영학과, 컨벤션전시경영학과, 와인·소믈리에학과, 문화관광엔터테인먼트학과 등 6개 석사과정과 와인·위터·티 마스터 소믈리에 전문가과정, 문화관광산업 경영자과정(First-Class Leader, FCL) 등 2개 특별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테크노경영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 스포츠경영학과, 건설안전경영학과, 복지경영학과 등 석사과정과 기업 제휴 MBA인 계약학과(건설안전보건학과, 글로벌경영학과, 미래혁신경영학과, 스마트기술경영학과, AI 기술경영학과), 특별과정(최고경영자과정, ESG경영 최고전문가 과정), 외국인 학생을 위한 중문 MB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대중예술과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제작, 1인 크리에이터 양성과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창업에 이르기까지 창조적인 콘텐츠 제작 능력을 지닌 멀티 엔터테이너로의 도약을 위해 각 전공의 심화 과정은 물론, 전공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용음악학과, 미디어엔터테인먼트학과를 운영 중입니다.





## ‘질병 없는 인류사회’ 건설을 향한 경희 의료기관

경희대학교의료원은 의·치·한의학 복합 의료기관인 경희의료원과 신개념 진료 패러다임을 구축한 강동경희대학교병원으로 구성된 의료기관입니다. 동서의학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신의학 분야를 개척하며 ‘질병 없는 인류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합니다.

경희 의료기관은 출범 50주년(2021년)을 맞아 새 도약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교육·연구·진료·글로벌 공공협력이라는 대학병

“  
경희대학교의료원이  
공공협력을 확대해  
대학병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원의 포괄적 사명,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더욱 집중하고자 합니다. 특히, 신·변종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글로벌 백신 기술 선도 사업단(사업단장)’으로 1,127억 원 규모의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보건복지부의 환자-의사 공유 의사결정 연구사업단, 병원 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에 잇달아 선정됐습니다.

## 경희의료원

경희의료원은 1971년 10월 5일 개원했습니다. 의료원 설립은 의사 양성이나 환자 치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적인 질병을 몰아내어 '인류사회 재건'의 일익을 담당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최신 의료 기술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희귀·난치·중증질환의 조기진단 및 맞춤형 치료를 제공합니다. 국내 최초로 의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3개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으며, 보건복지부 환자경험평가에서 3차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1위, 4차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2위를 기록했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전화** 02)958-8114

### 신하 의료기관

경희대학교병원 / 경희대학교치과병원 / 경희대학교한방병원 / 후마니타스암병원

##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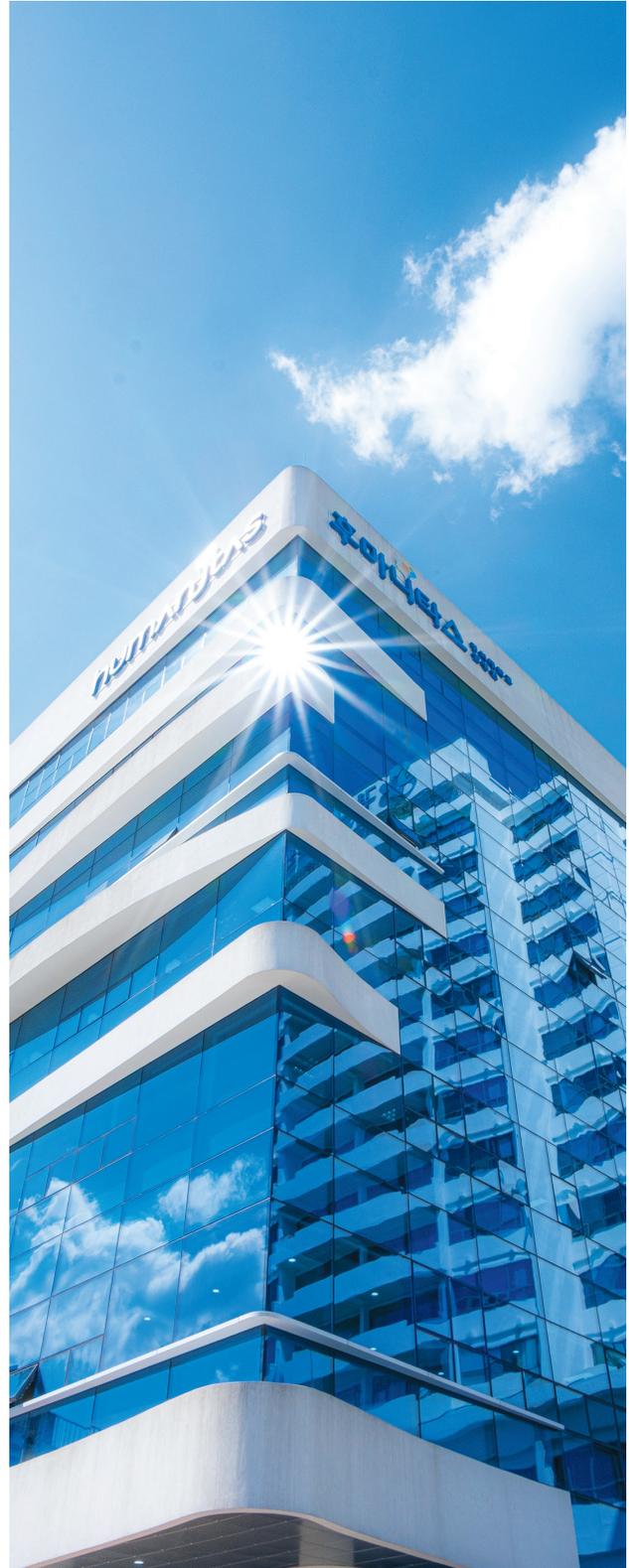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2006년 6월 12일 개원 이래 '수술 잘하는 병원'이라는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동소성 부분 보조 간이식(APOLT) 수술에 성공했고, ABO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 간-신장 동시 이식 등 고난도 수술을 성공시켜 왔습니다. 척추·관절·뇌수술부터 암, 장기이식, 로봇수술까지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암 적정성 평가 전체 1등급 획득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혁신적인 진료시스템을 도입해 환자 중심의 최첨단 병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892

**전화** 1577-5800

### 신하 의료기관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서울캠퍼스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국제캠퍼스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광릉캠퍼스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195